

“생태관광도시 함평, 서남권 중추도시 육성”

전남도, 함평군 정책비전투어

‘K-생태도시’ 8대 미래 핵심 비전 제시
김지사 “함평 도약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함평군을 ‘대한민국 생태관광 대표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빛그린 산단을 활용한 ‘초광역 K-모빌리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해 서남권 중추도시로 육성할 것이라는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28일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이상의 함평군수, 모정환(더불어민주당·함평) 전남도의원,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청년,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군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함평은 빛그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로 서남권 미래차, 신소재산업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32명까지 급상승하며 전국 6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학업장려금 등 함평 만의 맞춤형 정책 덕분”이라고 함평의 우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함평 어울림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함평군 정책비전투어’에 참석해 미래 비전·정책 현안 등 지역 발전 관련 의견과 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연구원은 ‘K-생태도시 함평’을 슬로건으로 함평군의 미래 핵심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8대 미래 비전은 ▲초광역 K-모빌리티의 중심 빛그린 산단 ▲RE100 산단 유치 전남형 그린 디지털 도시 조성 ▲K-축산의 대전환 AI 축산의 중심 함평 ▲K-HC 푸드밸리 조성 농산물 500

억원 수출 달성 ▲스포츠로 도약하는 휴인원 함평 ▲자연을 품은 대한민국 생태관광 대표도시 ▲해양 힐링 위케이션 조성 ▲촉촉한 교통망 구축 등이다.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는 군민, 김 지사, 전남도 실·국장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손불면 월천5리 주민 김영석씨는 “손불면 월천지구는 저지대로 만조 시 자연배수가 어려워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배수지 1곳과 배수로 1.2km를 신설하는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배수문이 하나라 침수

가 잦은 것 같다”며 “이미 재해위험지구인 만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나산면의 평능천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원선리 주민 이상민씨의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평능천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미지정 상태로 함평군이 지정 고시하면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함평 해안도로 개설사업 지원과 가족 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확대, 스마트 친환경 무화과 연중 생산 단지 조성, 함평 농특산물 해외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도 “2023년 전남도와 공동 발표한 1조8천400억원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모델로 함평을 탐비꿈시킬 것”이라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함평은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고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호남 제1의 화평하고 풍요로운 땅”이라며 “함평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의회, 존폐 위기 흥복학원 정상화 모색

교육계·학부모·전문가 참여 토론회

투명성·공립화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실행 의지 갖춘 재정 기여자 필요”

광주시의회가 흥복학원의 재정 기여자 모집 불발 사태 이후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시의회에서 ‘재정 기여자 모집을 통한 흥복학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세빈 흥복학원 산하 학교 교직원 대표, 광경자 학부모 대표, 오정선 흥복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종완 정상화추진위원(변호사),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김진영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세빈 대광여고 교사는 “신뢰와 투명성, 실질적 실행 의지를 갖춘 재정 기여자가 필요하다”며 “단기 해결책이 아닌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협력 구조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광경자 대광여고 학부모 대표는 “재정 기여자 모집 불발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 전반이 우려된다”며 “재정 기여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교육청 등에서 강력하고 선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상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정선 정상화추진위원회장은 “개인적인 토지 분쟁에 의한 이기심 때문에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학교 운영의 변질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완 변호사는 “재정 기여자 후보자에게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학교 부지 내 사유지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 기여자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립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립형 사학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사학정책팀장은 “흥복학원의 정상화는 임시이사회, 교육청, 교육부, 지역사회 모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재정기여자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중재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진 위원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 정부특보에 이춘문 前평생교육원장



광주시 정부특별보좌관에 이춘문(65·사진) 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임명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춘문 신임 정부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정부특별보는 오랜 의정활동과 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보좌해 국회, 시의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의 정무적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정부특별보는 1980년대 들불야학 강사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 제2·4대 광주 서구의원과 제6대 광주시의회를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을 지내며 의정과 정당 활동을 폭넓게 경험했다.

최근까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맡아 평생교육 현장에서 학습도시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 교육분야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강기정 시장은 “이 보좌관은 폭넓은 사회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현안 해결과 시민 의견 반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한옥호텔 오동재 ‘여수 유니크베뉴’ 선정

전남개발공사는 “한옥호텔 오동재(사진)가 ‘2025 여수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는 일반적인 컨벤션센터나 호텔이 아닌 여수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 MICE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여수만의 독창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한옥호텔 오동재’는 한옥의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성을 결합한 객실, 한식 다이닝과 연회장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학술

회의·워크숍이 가능한 복합형 문화·휴식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오동재는 전 객실에서 일출과 청명한 수평선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여수 유일의 한옥호텔이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또한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여수 방문 여행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재정 기자

13
ANNIVERSARY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gaok.or.kr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축하합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개 시도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CMYK